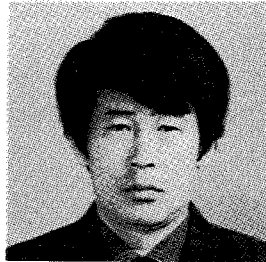


수입쇠고기와 열세에 있는 가격 경쟁을 품질 경쟁으로 유도해야



울산 육우회 박 충 길

정부가 쇠고기 가격을 떨어 뜨리기위해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확대하고 있어도 한우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비육우 사업을 하고있는 대부분의 양축가들이 이런 호황속에서도 계획성과 비육업에 대한 자긍심이 결여된 가운데 가는데까지 가보자는 막연한 입장에서 비육업을 하고있다.

국내의 거의 모든 육우생산 농가는 규모가 영세하고 비육용 밀소인 송아지의 자가생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시장에서 구입해서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송아지 구입가격이 농장 경영의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1년의 비육기간동안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숫송아지 한마리 가격이 정부가 예시한 큰소(400kg) 가격의 하한선을 웃돌고 있으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수입쇠고기를 무제한 방출해서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현실가격에 구입한 송아지는 시작부터 손실을 예상하면서 위험부담속에 사육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비육업만 하지말고 송아지 생산도 겸하면 될것아니냐는 반문도 나올법하다. 그러나 이또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임암소 출산율 70%, 암수비율 50%를보고 비육우 100두 규모를 유지하려면 가임암소 280두, 비육우 100두에 후보우 20두를 포함하면 400두의 소를 사육해야 농장을 경영 할수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농장을 갖출 수 있는 양축가들이 과연 전국에서 몇명이나 될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 나올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면 송아지 생산은 부득이 부업 농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부업농가의 이익을 비육농가가 보전하여 주지 않으면 밀소 구입처가 없어 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다행히 정부에서 한우계통번식지구를 확대 조성하여 한우의 우수한 형질도 개발하고 송아지 생산

66

가까운 일본은 장구한 기간동안 화우의 육질개선을위해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기울여 마스사까육, 오오미육등 고품질의 쇠고기를 개발하여 수입쇠고기의 4~5배의 비싼가격으로 일본시장은 물론 세계적인 시장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올해부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실시되는데도 동요없이 육우생산에 전념하고있는 현실을 보면 육우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러움을 금할길없다.

99

기반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단시일내에 성과를 올릴수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한우 비육업이 개방화 시대에서 살아 남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는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본다.

가까운 일본은 장구한 기간동안 화우의 육질개선을위해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기울여 마스사까육, 오오미육등 고품질의 쇠고기를 개발하여 수입쇠고기의 4~5배의 비싼가격으로 일본시장은 물론 세계적인 시장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올해부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실시되는데도 동요없이 육우생산에 전념하고있는 현실을 보면 육우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러움을 금할길없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여건을 갖출수 없을까?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일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우는 화우보다 더 우수한 육우로서의 형질을 갖추고 있다고한다. 다만 만숙종이기 때문에 비육기간이 조금 길다는것이 흠이라할까.

대부분의 양축가들은 상인들이 요구하는 400kg~450kg에 출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것은 한우의 우수한 육질이 형성되기전에 도축되는 어리석음을 결과적으로 초래하고 말았다고 할수있다.

즉, 450kg에서 등지방 축적이 형성되어 고급육 생산량이 많아진다고 하니 인내력을 가지고 사육해야 할것이며 고급육 생산에 박차를 가하므로 해서

열세에있는 가격경쟁을 품질경쟁으로 유도하는것이 우리 육우인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그러나 양축가들의 노력으로 고급육을 생산해도 현재와 같이 혼잡한 유통과정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있을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젓소 폐우와 홀스타인 숫소는 분명히 농장에서 출하될때는 한우가격보다 훨씬 싸게 정육점으로 들어가는데 정육점에서는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소비자의 기호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수입쇠고기의 한우육 둔갑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문제는 아직 문제시 되지 않는데 대한 견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국제사회는 자유무역이란 미명아래 개방화 시대로 치달고 있다.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개방이 아니라 강한자는 약한자를 위압적으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고 우쭐대던 정부는 최소한의 생존권 마저도 수호하지 못하는 힘없는 정부로 비쳐지고 있다.

88년도 년초부터 생존권 수호를 외치며 여의도로, 과천으로, 도청으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던 결연한 의지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전국에서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80만 양축가 여러분의 침묵은 정녕 현실 만족에의한 침묵으로 해석되어도 억울함이 없는것인지 강력히 반문하고싶다.